



울산 주민규, 20년 만의 토종 '멀티 득점왕' 프로축구 K리그1 '우승팀' 울산현대의 공격수 주민규가 리그 통산 5번째로 두 차례 이상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됐다. 울산은 3일 오후 2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최종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주민규는 전날 FC서울을 상대로 1골을 터트린 티아고(대전하나시티즌)와 17골로 같지만, 출전 시간이 적어 득점왕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수원 창단 후 2부리그 강등 충격

이르면 1년 만에 승격...전남, 첫 강등 후 승격 실패



2일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수원삼성 블루윙즈 대 강원FC의 경기, 무승부를 기록하며 2부리그 강등이 확정된 수원삼성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자 화악이 날아오고 있다.

프로축구 K리그 명문 구단 수원 삼성이 창단 후 처음으로 2부 리그로 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원이 언제 1부로 복귀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1년 만에 복귀한 구단이 있는 반면 5년째 2부에 머문 구단도 있다.

수원은 지난 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최종 38라운드 홈경기에서 강원FC와 0-0으로 비겼다. 최하위 12위가 확정된 수원은 내년에 K리그2(2부 리그)로 강등된다.

1995년 창단해 1996년부터 K리그에 나선 수원은 승강제 도입 후 처음 2부에서 뛰게 됐다.

수원은 K리그에서 4회(1998년, 1999년, 2004년, 2008년), 대한축구협회(FA)컵 5회(2002년, 2009년,

2010년, 2016년, 2019년) 우승을 달성한 명문 구단이지만 2부 강등이라는 수모를 겪게 됐다.

창단 첫 2부 강등 후 1부 복귀까지 걸린 시간은 구단마다 달랐다.

한 시즌만 2부에서 보낸 뒤 1부로 복귀한 구단들은 상주 상무와 대전하나시티즌, 제주유나이티드다.

상주 상무는 2013년 강등됐지만 바로 승격에 성공해 2014년 1부로 올라갔다. 대전하나시티즌은 2014년 2부로 내려갔다가 2015년 1부에 복귀했다. 제주유나이티드는 2020년 강등됐다가 2021년 1부로 돌아갔다.

전남드래곤즈는 창단 첫 강등 후 5년째 1부로 돌아오지 못했다. 전남은 2019년 강등된 후 계속 2부에서 뛰고 있다.

울산 현대 '우승' ...K리그1 2연승 달성

전북, 울산에 패하며 ACL2행

포항과 비긴 3위 광주, 최초 ACL 출전



3일 오후 울산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연승을 달성한 울산 현대선수들이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5위에서 극적 반전을 노렸던 인천 유나이티드는 같은 시각 6위 대구 FC 원정에서 1-2로 패배하며 순위를 바꾸지 못했다.

이로써 광주가 ACL2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전북이 ACL2 출전권을

가져가며 시즌이 막을 내렸다. 광주는 구단 최초로 AFC 클럽대항전에 나서게 됐다.

승리한 뒤 타 구장 상황에 따라 ACL2가 가능했던 전북은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다. 지난

시즌과 달리, 홈에서 열리는 최종전 승리로 우승 세리머니에 방점을 찍고 싶었던 울산도 활발한 공격 전개를 보였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전반 31분 홈팀이 웃었다.

상대 페널티박스 앞에서 김성준의 패스를 받은 설영우가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트렸다. 득점 후에는 우승을 자축하는 트로피 세리머니를 펼쳤다.

갑자기 급해진 전북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변화를 줬다. 아마노 준, 이준호를 빼고 하과 실바, 문선민을 투입하며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오히려 울산이 추가골 기회를 맞았다. 후반 21분 역습 상황에서 골키퍼와 단독 찬스를 맞은 엄원상이 슈팅까지 연결했으나 골대에 맞으며 득점에는 실패했다.

이후 전북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여러 차례 울산 골망을 노렸지만 영점이 아쉬웠다. 울산도 상대 추격의지를 꺾기 위한 추가골을 꾀했으나 마무리가 정확하지 않았다. 추가 골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울산의 1-0 승리로 막을 내렸다. /뉴시스

한양궁 60주년...정의선 회장 “대중화·사회공헌 지속”

60주년 기념식...“헌신했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지난 60년간 한국 양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양궁이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 양궁 60주년을 맞이해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양궁은 1963년 국제양궁연맹 가입을 기점으로 태동했으며, 1983년 대한양궁협회가 설립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지난 60년간 세계무대에서 빛나는 성적을

기록하며 우리 국민의 큰 기쁨이 됐다.

정의선 회장은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2005년부터 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다. 정 회장은 양궁협회 재정 안정화는 물론 양궁의 스포츠 과학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이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유소년부터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양궁 단체의 임원을 다수 배출하는 등 스포츠 외교에서도 한국 양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정 회장은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으로 5연임하고 있기도 하다.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장으로서는 한국 양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양궁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의 대중화, 글로벌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정 회장은 우리 양궁이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궁협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혁신에 앞장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글로벌 양궁 인재 육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양궁 선수는 물론 국제 심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간 양궁 교류도 확대해 한국 양궁의 위상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의 제안으로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부터 인공지능(AI), 비전인식, 3차원(3D) 프린팅 등 현대차그룹의 연구개발(R&D) 기술을 양궁 훈련과 장비에 도입해 큰 성과를 거뒀다. 향후 더 고도화된 신기술을 적용해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김재열 IOC 위원 등 유관단체 인사, 정의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양궁실업팀 인사 등이 참석했다.

羅海

해라수산 66번 중매인

자연산 뽕낙지 전문

뽕낙지 · 홍어 · 전복 · 하모(갯장어)
곰창김 · 매생이 · 계절수산물

싱싱하고!! 저렴하게!!

장흥수협대리위판장

전복

● 13~15미 31,000 ● 9~10미 38,000
● 11~12미 34,000 ● 8~9미 40,000

홍산 홍어

수입 (小박스) 50,000 (中박스) 70,000
국산 (小박스) 70,000 (中박스) 130,000

갯장어(하모)

손질 (1KG) 25,000
회&샤브 선택 ※택배비 5000원 별도

홍산홍어는 마리 단가 (문의)

66번중매인 해라수산

뽕낙지·홍어·전복·하모·문어

전국.택배.버스.발송

010-2421-3246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5

☎ 농협 302. 2421. 3246. 71 (예금주. 권해라)